

2005년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 달크로즈 음악교수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 보 영



# 달크로즈 음악교수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Dalcroze

2005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 보 영

# 달크로즈 음악교수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경 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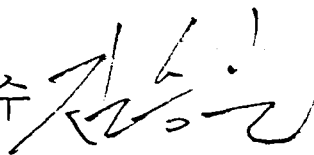

2004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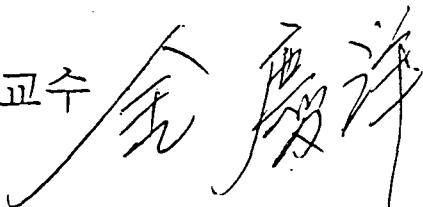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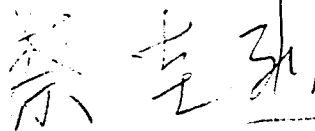

음악교육전공

정 보 영

정보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 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2004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II. 본론	
1. 달크로즈에 대하여	
1) 달크로즈의 생애와 음악 .....	4
2)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 철학 .....	8
3) 달크로즈 이론의 분석 .....	11
2. 달크로즈 교수 방법	
1) 유리드믹스 .....	14
2) 솔페지 .....	21
3) 즉흥 연주 .....	24
3. 달크로즈 교수법의 음악적 반응 .....	26
4. 달크로즈 교수법의 이론정리 .....	28
5.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교육 방법	
1) 동작 지도 방법 .....	28
2) 리듬 교육의 단계적 지도 방법 .....	33
3) 음정과 계이름을 익히기 위한 단계적 지도 방법 .....	37
4) 신체 리듬 치기 .....	41
5) 심표의 소리 없는 리듬의 흐름을 익힌다. ....	41
6) 리듬패턴 그리기 .....	42
7) 리듬패턴으로 창작(작곡)게임 .....	42

6. 달크로즈 음악 교육 이론에 기초한 노래 지도의 실제	43
III. 결론	46
참고문헌	48

## ABSTRACT

Title: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Dalcroze

Bo-young Jeong

Advisor: Prof. Kyung-Yang Kim, Ph.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s the significance of music education has progressed, the recognition of various teaching method began to emerge. In this teaching technique music isn't just played

with high and low notes in a constant melody, but it is learned through rhythmic

teaching techniques throughout the world. The Dalc instruments, feeling and expression through every sense of the body.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Dalcroze methodology that highly influenced musical roze tinvolves three components:

- Eurhythmicsbody movechnique ement
- Solfege(singing with a piece)
- Improvisatioin piano playing

Eurhythmics is the most rudimentary and fundamental aspect of the method. This teaching technique utilizes the element of sound waves and

the natural Dalcroze

movement of the human body. The Dalcroze chnique develops sensitivity to rhythm movements such as jumping, walking and acting with the use of various instruments.

This technique helps beginners to sense accurate rhythm through repetition. It allows participants to experience self-expression through imitation.

Dalcrozebelieved his students would develop their musical expression through freely playing the piano and singing by note. He also concluded that teachers who would implement his methodology, would eliminate cramming and help their students have a comfortable positive approach to music. This methodology fosters

a sincere attitude toward research and the exploration of finding new ways to stimulate student interes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음악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로 들음으로써 음악을 느끼고 음악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Emile Jaque Dalcroze-1)

음악은 제 2의 언어로써 우리가 먼저 귀로 듣고 들은 것을 말하며 음표를 읽게 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연주하는 단계로 가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악보읽기와 연주에 관한 테크닉에 치중된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가지며 자신의 연주 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기계적인 테크닉 위주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음악교육의 새로운 관점은 현존하는 다양한 음악교육 방법 중 귀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오감을 자극시켜 느낀 것을 두뇌로 인식시키며 이것을 목소리, 악기, 신체로 표현하는 통합 교육 과정을 통해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키우는 것이다.

1960년 이래 음악교육을 체계화시켜 독특한 교육 방법을 창안한 달크로즈는 통합적인 음악 교육 방법에 영향을 주었다. 달크로즈의 교수법은 리듬을 바탕으로 모든 음악을 신체와 두뇌가 연관된 협응력 교육으로 음악적 두뇌와 음악적 감각을 계발시키는데 있다. 달크로즈 음악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

---

1) Web site 문서 참고, 한국달크로즈협회, Available:<http://www.dalcroze.co.kr>

와 적용은 현대 음악 교육의 국제적 추세라 할 수 있으며 음악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은 이 주옥 (1982) 의 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음악 교육 내용 중 '노래 부르기' 가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도 방법은 리듬이나 음정에 대한 선행 지도 없이 주로 피아노로 노래를 들려 준 후 따라 하게하며, 음악을 지도하는 교사는 전반적으로 음악지도에 자신감이 없으며, 음악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한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달크로즈의 이론을 분석하고 유드리믹스, 솔페지, 즉흥연주의 세 가지 대표적인 교수방법을 통해 현대 음악 교수법 중의 하나인 달크로즈 음악 교수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2) 이주옥(1982), "유치원 음악지도의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미간행) p.17-25

## 2. 연구의 목적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는 벌써 20세기 초에 달크로즈 교육이 도입되어 대학마다 달크로즈 전공이 개설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교육의 가치가 인정 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즐거움과 감동을 줌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이 생활의 문화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이다. 음악교육은 매일의 생활과 관련을 맺으면서 실시 되어야 하고 리듬감을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술을 익히고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우리는 음악 교육이 양적인 교육에서 질적인 교육으로, 일반적인 교육에서 전문적인 교육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에 대한 반성과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고 각각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음악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달크로즈 음악교육 이론을 이해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음악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보다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교수법을 위한 하나의 자료를 제공 해 통합적인 교수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II. 본 론

### 1. 달크로즈에 대하여

#### 1) 달크로즈의 생애와 음악

달크로즈는 1865년 7월 6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태어났고 그가 10세가 되는 해에 스위스 인이었던 부모를 따라 고국 스위스의 제네바로 이주해서 살게 된다.

그는 어린 시절 페스탈로치 철학을 전수 받은 음악 교사였던 어머니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 문화의 도시 비엔나에 살면서 오페라, 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음악적인 배경은 그가 7세 되던 해에 6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884년 달크로즈는 파리로 건너가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 들리브, 포레와 공부를 하였고 특히, 스위스의 이론가, 마티스 리시와의 정통적인 리듬 수업은 그가 훗날 창안한 유리드믹스 수업의 기초를 마련 해주었다. 또한 그는 연극에의 관심에 의해 The Come die Francaise 의 탈보에서 연극 레슨을 받기도 하였다.

1886년에는 알제이에서 음악 감독으로 일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그는 아랍의 민속 음악과 그 음악들에서 사용되는 불규칙하고 원시적인 리듬에 매료되었고 이러한 리듬 기법들은 훗날 그의 유리드믹스 수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887년부터는 비엔나 콘서바토리의 학생이 되어 브루크너와 작곡 공부를 한

그는 졸업 후 제네바로 돌아가 배우, 가수, 지휘자, 시인, 작곡가, 피아니스트, 민속음악학자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달크로즈는 28세(1892년)에 스위스의 제네바 콘서바토리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곳에서 화성학과 솔페지를 가르치게 되고 이것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된다.

달크로즈는 음악의 주된 요소는 흐름 결이고 모든 음악적 흐름결의 원천은 사람의 신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흐름 결에 기초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고안된 독특한 음악 지도 방법이다.<sup>3)</sup>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닉적으로는 훌륭하게 연주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악기를 통해 전달하는 음악적 표현에는 미흡하다는 것

둘째, 학생들이 화성학 시간에 화성을 수학 공식 다루듯이 외우는데 그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

셋째,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멜로디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

넷째, 리듬감이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아 연주 시 리듬 표현이 서투른 것

달크로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드믹스, 솔페지, 즉흥 연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연계 시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의 독특한 교수법을 창안 해 냈고 1905년 Solothurn Music Festival에서의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그의 교수법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달크로즈가 독특한 음악지도 방법을 창안한 것은 그가 제네바의 한 음악 학교에서 화성법과 시창법 교수로 일하던 28세경부터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학생들의 경우 악기를 연주하는

3)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08

기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아주 단순한 흐름 겹조차 제 힘으로 다루지 못하였고, 음의 높낮이와 조성, 음악적 억양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화성법에 따라 화음을 쓰고도 화음을 듣지는 못하였고, 매우 간단한 가락의 동형진행이나 화음 진행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능적으로 연주하는 방법만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며, 음악의 생성 원리를 발견하려는 노력 없이 음악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었다.<sup>4)</sup>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기초적 요소들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음악 학습의 주된 역할이어야 한다고 믿고 유리드믹스, 솔페지, 즉흥 연주 하기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그는 그의 교수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럽 전역을 다니며 강연회를 가졌고 1911년에는 독일의 드레스덴근교, 헬레라우에 학교를 세워 세계 각지로부터 그의 교수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을 교육하였다.

그는 또한 학생들이 리듬형을 연주하는 데는 곤란함이 있는데 걸음을 걷는 것과 같은 신체적 활동에는 아무런 리듬의 어려움이 없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관찰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음악적 리듬을 가지고 있으나 이 본능을 음악적으로 이전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학생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각각 다른 속도로 걷게 함으로써 이 개념을 실험했다. <sup>5)</sup>

한편, 1913년 달크로즈가 감독하고 유리드믹스로 훈련된 음악가와 무용가들이 헬레라우에서 공연한 글록의 “오르페오”는 달크로즈 교수법을 다시 한번

---

4) 이흥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09

5) 찰스R.호퍼(1954), 음악교육론,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51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1914년 일어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헬레라우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며 활동하던 달크로즈는 제네바로 돌아갔고 1915년 달크로즈 인스티튜트를 설립한다. 양 대전을 거치면서 두 번이나 스위스가 고립되어 대외적으로 달크로즈 교수법을 알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달크로즈와 그의 교수법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달크로즈 교수법은 전세계로 퍼져 나갔고 그의 70세 생일에는 46개 국적으로 포함된 10500명의 그의 전수 자들의 사인이 수록된 책을 선물 받기도 했다. 또한 그의 교수법은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교육에 쓰여지고 또한 신체장애나,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이나 성인의 정신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고, 20세기 음악 교육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던 그는 1950년 8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Le Rhythme, la musique et l'éducation* (1920) :1898년부터 1919년까지 쓰여진 기사를 중심으로 엮은 책, *Eurhythmics, Art and Education* (1930)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쓰여진 기사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 있고 유리드믹스 클래스와 솔페지 학습을 위해 1000곡 이상의 노래를 만들었다.

오르프나 코다이 교수법에 비하여 달크로즈 교수법은 우리나라의 교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유치원의 교육 자료들을 살펴보면 달크로즈 교수법에 기초한 많은 활동들이 그 동안 행해지고 있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음 능력을 키우고 음악적인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신체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 반복적인 울동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청음 능력 발달과는 상

관없이 무용 교육과도 같은 수업 내용이 많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20세기 초 미국에 갓 소개되었을 때도 일어났는데 음악 교사들이 달크로즈 수업을 무용 교육으로 착각하여 음악 수업에서의 효용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교사들이 외면함으로써 달크로즈 교수법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스위스의 달크로즈 연구소를 중심으로 달크로즈 음악 철학은 올바르게 알려 지게 되었으며 몇몇 음악 교육자들에 의해 1960년대 말부터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 철학이 재조명 작업이 일어나면서 오르프, 코다이 교수법과 더불어 음악 교수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달크로즈 교수법만 고수하기보다는 다른 교육가들의 방식도 수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달크로즈 워크숍에 코다이 전문가, 오르프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서로의 좋은 교육 내용을 나누기도 한다. 달크로즈가 처음에 유리드믹스를 도입한 대상은 음악을 전공 하는 대학생들이었다. 흔히 달크로즈 교수법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달크로즈 교수법은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음악성을 계발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 2)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 철학

음악적 재능이란 어린이 자신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어린이 자신의 몸이 리듬의 중요한 요소인 박자감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여 음악적 제반력의 근원을 “리듬”이라고 보고 이 리듬이라는 인간 공통의 감각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표현하는 수단을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달크로즈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특수한 리듬으로서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정신과 신경, 인식과 잠재인식, 상상과 행동과정의 관계를 음악교육으로 계발시키는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sup>6)</sup>

달크로즈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신체적, 감정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여겨지는 당시의 철학 및 교수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학생들이 악곡을 정확한 빠르기로 연주하지는 못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정해진 빠르기로 걸을 수 있고, 모든 학생들이 음악에 반응하여 몸을 흔들거나 발로 박자를 맞추며, 음악에서 듣는 강세를 신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그는, 음악을 이해하게 하고 음악 표현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귀나 마음 또는 소리 내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몸 전체를 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Eurhythmics라는 독특한 리듬 지도 체계를 계발해내기까지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리듬을 치거나 발을 구르는 것과 같은 단순한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많은 근육 조직을 이용하여 몸 전체를 사용하는 매우 활발한 리듬 경험을 가

---

6) 임산희(1986), "유치원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미간행) p.8

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신의 움직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올바른 리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신체적인 조화도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셋째, 리듬에 따른 상징을 해석하여 신체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것은 많은 리듬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넷째, 어린이들은 자신이 들었던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음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다섯째, 몸, 마음, 감정은 리듬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어린이들이 리듬에 따른 느낌을 신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창조적인 면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의지대로 신체적인 표현을 한 어린이들은 위대한 예술 작품에 무관심한 어린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음악 예술의 기초는 감정이며, 음향이나 음악, 음악적인 감각에 대한 민감성, 분석력 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귀나 목소리의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신체는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음악적인 느낌을 감지하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몸 자체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랜 연구 끝에 달크로즈는 'Eurhythmics'라는 음악 학습의 접근 방법을 창안하였고, 'Eurhythmics' 지도를 통해 발견한 음악 지도의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여 게이름으로 부르기와 즉흥 연주의 지도 방법을 고안하였다.<sup>7)</sup>

그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Esouard Claparede의 도움으로 실험을 한 끝에 '자극과 억제의 방법'을 발견하였다. 이 방법은 음악적 변화에 즉흥적으로 반

7)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13

응하는 끊임없는 주의력과 창조력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의식적인 통제 아래 근 운동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감상과 동작, 느낌과 동작, 감각과 느낌, 분석과 감각, 독보와 분석, 작곡과 독보, 즉흥 연주와 작곡, 연주와 즉흥 연주 등을 나선형으로 연결하는 학습 과정과 방법을 발견한다.

### 3) 달크로즈 이론의 분석

달크로즈는 실험을 통하여 청음훈련은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듣는 힘은 청각이외의 감각 요소와도 관련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교수 방법에 적용하게 된다.

달크로즈가 자신의 독특한 음악교수 방법을 통해서 구체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소리에 대한 정확한 청음발달을 이루어야 한다.
2. 자유롭고 활발한 발명(Invention)능력이 계발되어야 한다.
3. 신체 운동을 통해서 음악적 리듬감을 발달시켜야 한다.

인간의 리듬감각, 음악적 귀 (musical ear) 목소리와 근육의 조정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동시에 발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신체동작(body Movement)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느낌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달크로즈는 리듬을 모든 예술 활동 특히 음악에서 기본적이며, 동기 유발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기능이 음악에 대한 음악적 반응 (musical Response)이라는 가능성으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음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소리, 리듬, 세기)는 전적으로 동작에 의존하며, 음악 체계 내에서 대조물(counterpart)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템포(tempo)와 세기(Dynamics)와 변화는 우리의 신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음악적 느낌(musical feeling)의 강도는 신체적 감각의 강도에 의존한다.

화성학 시간에 화성을 적으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했을 때 학생들은 자기가 적은 것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화성학이 그저 단순히 수학적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음악가 양성의 재래식 방법이 지적인 면으로만 치중하고 음악 공부 초기에 다루어야 할 기초적인 요소에 관하여는 귀중한 “경험”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sup>8)</sup>

달크로즈 학습에서 “듣기”는 모든 활동에 선행되며, 본질적인 과정으로 솔페지(Solfege)교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강력한 듣기 경험(Intensive listening)은 어린이들의 음악적인 귀(Good ear)로 발달되도록 이끌어 준다.

달크로즈 학습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아노 연주를 통해 어린이들이 음악에 대해 몸 전체로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악기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사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은 달크로즈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데, 이것은 음악은 어린이에게 전신의 반응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연주를 통해서 어린이가 움직임에 대한 “음악적 느낌”(musical feeling)을 창조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달크로즈는 또한 예외적인 학생, 즉 특별히 재능이 있거나 혹은 장애 학생에

8) 찰스R.호퍼(1954), 음악교육론,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50

게도 똑같이 관심이 있었다. 그는 얼마 동안 맹인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그들을 위하여 특수한 운동을 고안해냈다.

미국에 달크로즈 접근법이 소개된 것은 1915년경이었다. 공립학교에서는 달크로즈가 정식으로 가르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교사들은 더러 그의 방법을 채택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교사들이 이 방법을 미처 깨닫기 전에 이미 영향을 받았다. 초등학교에서 “걸기”와 “뛰기”가 4분음표와 8분음표로 표기된 것이 한 가지 흔한 예이다. 1930년경에는 여러 음악대학과 체육교육과에서 ‘유리드믹스’과목을 필수로 했는데, 이 용어는 대개 달크로즈와 같은 지도법에 사용되는 말이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조심스럽게 되살아났다. 약 20개의 대학에서 이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하며 이 중 4개 대학에서는 달크로즈 자격증을 준다.<sup>9)</sup>

더 나은 음악 지도를 위한 최대한의 변화 중의 하나는 음악의 관련성에 관심이 더 많았던 이전의 노력에 비교해 볼 때 일반 음악 교사들이 개념적 접근법을 점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음악으로 이야기 수업을 강조했던 것과 지리, 사회, 수학, 과학을 음악과 연관시켰던 것 대신에 음악 교육의 향방이 음악의 구성 요소인 음높이, 음길이, 셈여림, 음 빛깔과 음악의 결과적 부수물인 가락, 화음, 리듬, 기악 편곡, 양식, 형식 등의 음악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sup>10)</sup>

---

9) 찰스R.호퍼(1954), 음악교육론,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52

10)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146

## 2. 달크로즈 교수방법

달크로즈의 교육적 의문은

• 왜 음악이론과 악보가 음악을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격리되어 있는가?

• 음악적인 귀를 기르는 좋은 교육방법은 없을까?

• 교육학과 실제의 연주와 상호작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왜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은 음악역사, 하모니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 왜 음악가들조차 질이 좋은 음악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달크로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11)

유리드믹스(Eurhythmics) 솔페지 (Solfege) 즉흥(Improvisation)

### 1) 유리드믹스

달크로즈의 접근 방법은 음악에 따른 신체적 움직임과 악보보고 부르기, 피아노 즉흥 연주 등 세 가지를 주된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도 방법은 유리드믹스이다. 12) 유리드믹스란 히랍어로 '좋은 움직임, 훌륭한 흐름' 이란 뜻으로 음악의 주 요소는 흐름이며 그 흐름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온다는 달크로즈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다. 달크로즈는 리듬 체조법을 통해 공간감각, 근육 감각,

11) 이양순(2003), 움직임을 통한 음악적 두뇌와 감각 계발에 관한 고찰, 동서음악학회지 p.2

12)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14

촉각, 청각, 등의 기능을 발달시키고자 하였으며 음악의 원천은 감정이며 그 감정은 감각을 통해 느껴지고 동작을 통해 전환 표현되기 때문에 음악학습을 위해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악기는 인간의 몸이라고 생각했다.

Lois Choksy 는 『Teaching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에서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정신적, 감정적인 면에서

: 인식력, 집중력, 통합 반응력, 낯익스 감지 및 표현력 등을 기른다.

② 신체적인 면에서

: 움직임의 용이성, 움직임의 정확성, 움직임을 통한 자기 표현력(시간-공간-역동성-무게-균형 등의 법칙을 사용하여) 등을 기른다.

③ 음악적인 면에서

: 연주, 분석, 독보, 기보, 즉흥연주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청각각과 반응력, 즉, 신속 정확하게 청취하고 그 음향에 대하여 개성 있게 반응하는 능력을 기른다.

달크로즈는 유리드믹스를 통해 학생들이 좋은 리듬을 가지기 위해 학습해야 할 리듬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34항목을 제시하는데 그가 제시한 흐름결의 세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시간+공간+힘+무게+균형+유동성을 바탕으로
2. 규칙적인 박
3. 빠르기
4. 빛깔이 있는 빠르기
5. 강약
6. 빛깔이 있는 강약
7. 악상
8. 악센트에서 나타나는 리듬
9. 마디에서 오는 리듬
10. 쉬
11. 지속
12. 세분
- 13.

패턴 14. 고유의 박 15. 악절 16. 단선율 형식 17. 축소 18. 확장 19. 리듬적 대위법 20. 싱크레이션 21. 반주가 있는 단선율 22. 대위법형식 23. 카논 24. 푸가 25. 부가 리듬 26. 혼합박자 27. 혼합 박 28. 혼합 마디와 혼합 박 29. 복합 박자 30. 복합 리듬 31. 헤미올라 32. 리듬적 변화 33. 12음 나누기 34. 루바토 가 있다.<sup>13)</sup>

위의 세부적인 사항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바꾸는 유리드믹스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어떤 형식화된 춤곡과는 달리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는 음악의 리듬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몸짓으로 표현해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리듬의 표현을 위해 시간, 공간, 힘, 균형, 무게, 유동성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요구되고 상상력을 통한 창의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sup>14)</sup>

달크로즈 음악지도의 주된 원리는 빠르기와 썸여림 등의 음악적 요소들이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시간과 공간, 에너지들도 상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음악과 신체동작을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은 이러한 상호 관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맨발에 평범한 옷을 입고 교사의 즉흥 연주에 따라 걷고 웅크리고 기고 뛰고 달리고 깡충 뛰고 덩굴고 획 돌며 저마다의 음악적인 느낌을 신체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 일과 독특하고 다양한 움직임 만들어 내는 일이다.

---

13) 이흥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14-315

14) 이양순(2003), 움직임을 통한 음악적 두뇌와 감각 계발에 관한 고찰, 동서음악학회지 p.4



신체적인 동작이 전적으로 음악적 현상에 의존하는 것 이어야 하며, 그 동작이 개인적인 느낌에 따른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5)</sup> 유리드믹스 교육방법을 위하여 달크로즈는 수천 가지의 음악적 게임과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 리듬을 기초로 한 모든 음악적 요소를 움직임을 통해 듣는 훈련과 창작 움직임을 감각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교육 철학이 모든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그가 한 말 중에서 “보는 음악, 듣는 미술”의 개념은 예술의 통합적 의미를 나타냈으며 미술에서도 음악적 리듬을 느끼게 하였다. 그림과 조각 예술에서 밝고 어두움, 선, 무게와 균형, 모양과 색깔 등이 리듬의 표현이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학적 의미와 교수법은, 공간 속의 움직임과 시간 안의 음악적 개념을 칼 오르프와 마리아 몬테소리, 줄탄 코다에게 영향을 주었다. 칼 오르프는 타악기 연주에 발전시켰고 마리아 몬테소리는 유치교육에 점차 뿌리를 내린 것이다.<sup>16)</sup> 리듬이라는 정의를 알려면 먼저 박과 템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박과 템포의 차이를 규정해 보면 박은 공간속에 움직이는 힘이 짜여져 있는 것이고 템포는 시간이 감지된 박, 다시 말해서 시간 속에서 흐르는 박이 바로 템포이다.

- 규칙적인 템포 | | | | | | |
  - 불규칙적인 템포 || ||| | ||| | |
  - 색조가 있는 템포-아첼레란도(점점 빠르게)
- | | | | | |||||

15)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17

16) 이양순(2003), 움직임을 통한 음악적 두뇌와 감각 계발에 관한 고찰, 동서음악학회지 p.4

• 리타르단도(점점 느리게) || | | | | |

박은 음표뿐만 아니라 쉼표에서도 흐르고 있다, 박에 여러 가지 음악적 질을 포함시켜 다양한 에너지의 박을 낳게 하는 것이다. 유아기에는 규칙적인 움직임을 신체를 통해 끊임없이 체험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 17)

※ 유리드믹스의 리듬운동

① 음의 속도에 관한 연습

: 점점 빠르게 또는 점점 느리게, 갑자기 또는 유연하게 등을 동물의 동작을 연상 시키면서 그 모양을 모방하게 한다.

② 음의 강약에 관한 연습

: 점점 세게 또는 점점 여리게, 갑자기 세게 또는 여리게

ex) 세게 - 동작을 크고 힘차게 표현.

여리게 - 동작을 작고 귀엽게 표현.

③ 음질에 대한 연습

legato - 부드럽게 이어 나가도록 표현.

staccato - 똑 똑 끊어지는 느낌의 표현.

④ 음의 고저에 대한 연습

높은 음 : 키를 세워 높은 동작 ↔ 낮은 음 : 허리를 낮춘 동작

상행 음계 : 전진 ↔ 하행 음계 : 후진

⑤ 음표의 시가에 관한 이해

: 음표의 시가는 4분 음표를 단위로 감각적으로 감득시키기 위해 '리듬의 말'을 사용하거나 리듬 분할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리듬의 말'에 사용되는

17) 문연경(2001),유리드믹스 교수법 2권,서울:현대음악출판사 p.14-17

언어는 사용상 어린이와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언어 사용의 유의점

㉓ 받침이 붙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㉔ 부자연스러운 용어,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㉕ 일반적인 의성(땀따,,,)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㉖ ↓로 걷기 또는 손뼉 치기를 하고 지시가 있으면 ↗등으로 바꾸어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하다가 지시에 따라 ↓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이 있다.

⑥ 악센트 붙이기

: 손뼉을 치는 도중 지시가 있으면 한 번만 책상을 세게 치거나 강한 박수를 치게 한다. 또 걷는 중에는 발을 구르거나 손뼉을 치게 한다. 이 때 계속 걸으면서 동작을 취한다.

⑦ 리듬형의 운동

: 팔로 박자를 저으면서 리듬 형태로 걷는다.

⑧ 프레이즈에 관한 연습

: 리듬꼴이 모여서 한 개의 프레이즈가 성립되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리듬감을 체득시킨다.

⑨ 리듬 캐논의 연습

: 리듬악기, 음판악기, 피아노, 오르간 등 리듬이나 가락악기 사용 가능, 이때 어린이의 동작은 신체표현, 사물 흉내를 내면서 언어화 시켜본다.

⑩ 싱크레이션의 연습

한 마디 또는 두 마디를 교사의 반주 또는 시범에 맞추어 따라 하는 방

① 리듬 적기

: 조금 세계, 보통 빠르기에 대해 그려지는 선의 기준을 정하고 세계 느렸을 경우는 굽게 빠를 때의 선은 작게 그린다.

⑫ 리듬 창작 ⑬ 리듬 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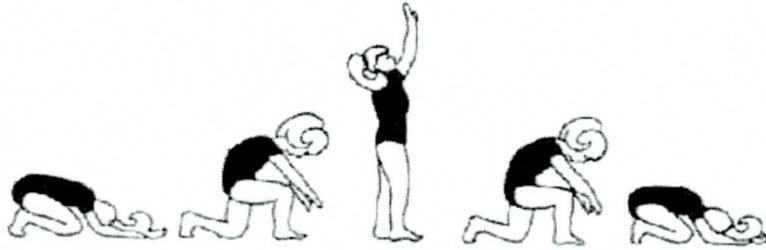
※ 신체 표현



달리다가 경충 뛰기



점점세계



점점 세계, 점점 여리게



강세

## 2) 솔페지(계이름으로 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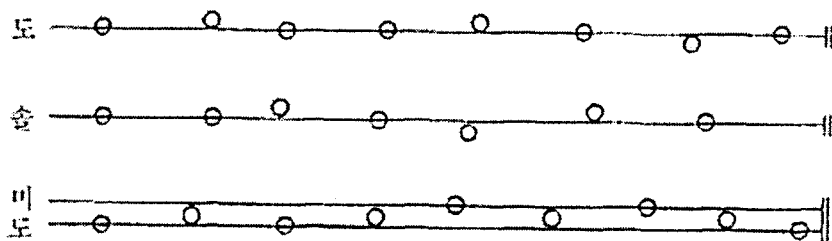
달크로즈의 접근 방법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악보 보며 계이름으로

부르기' 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청각각과 기억에 의존하는 까닭에, 게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음악을 이해하는 조건과 자발성, 창의적인 상상력을 기르는 데에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악보를 읽고 즉시 음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게이름으로 부르기를 몸의 움직임과 결합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악보를 보고 리듬과 가락, 음정, 셈여림 등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그는 악보를 보면서 게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 내청을 개발시키고자 하였다. 달크로즈는 절대 음감을 강조하여서 C 음을 항상 ‘도’ 로 부르는 고정도법을 권장 하였다.

그는 악보가 음악의 전달 수단이자, 음악 활동의 주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악보를 읽는 능력은 음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악보 읽기를 지도하는 단계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18)

첫째, 한 줄 악보를 사용하고 다음에 두 줄 악보를 사용한다.



둘째, 가운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 높은음자리표를 각각 사용하면서 세줄, 네줄, 다섯줄의 악보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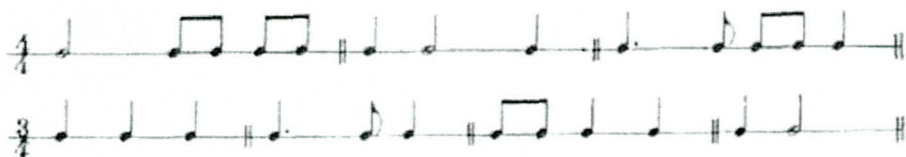
18)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23



셋째, 악보에 의해 음계를 익힌다.



넷째, 악보를 보며 손 신호, 몸짓, 팔 짓기 등으로 흐름 결을 표현한다.



다섯째, 음계에 여러 가지 흐름 결을 붙이고 보고 부른다.



달크로즈의 '계이름으로 부르기' 학습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듣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계이름으로 부르기에서 청각각의 발달만을 위한 학습이 아닌 리듬감의 체득과 기보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음악에 대한 흥미를 더욱 갖도록 하였다.

다음은 달크로즈가 학생들에게 악보와 관련하여 가락을 가르친 실례이다.

- 오선칠판에 몇 개의 빈 마디를 남겨 놓은 채 가락을 적는다. 노래를 부를 때, 그 빈 마디에서는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가락을 만들어 부르도록 권한다.
- 칠판에 가락을 적고 학생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 두 번째 노래 부를 때에는 각 작은악절을 시작할 때마다 한 단씩 지워서 외어 부르게 한다. 그리고 전체 노래를 외어 부르게 한다. 19)

### 3) 즉흥연주

달크로즈의 세 번째 지도 방법은 즉흥연주이다. 달크로즈의 즉흥연주는 박자, 강세, 음높이, 화음, 음계 등의 모든 음악 요소들을 결합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써 모든 신체적 움직임(운동, 대화, 말), 노래,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피아노 등이 사용되어진다. 피아노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음악적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가장 쉽고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가 피아노로 말이 달리는 모습을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 음악에 따라 자유롭게 신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교사가 한 어린이를 오게 하고 자신의 오른쪽의 높은 건반들로 날아가는 새의 움직임을 나타내게 하고, 또 다른 한 어린이를 오게 하여 왼쪽의 낮은 건반들로 사자의 움직임을 소리 내도록 권함으로써 교사의 즉흥 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음악을 만들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즉흥 연주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피아노는 화성적 구조에 친숙해지도록 이끄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화성이론을 도입하기 전에 둘 이상의 소리를 동시에 내면서 즉흥 연주를 함으로써 여러 소리가 동시에 날 때의 효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하

---

19) 이흥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25



기 때문이다.<sup>20)</sup>

16-18세기에 증시되던 즉흥 연주는 작곡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의도를 악보에 충실하게 기보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쇠퇴하였다. 하지만 달크로즈는 즉흥 연주의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생들에게 일정한 패턴(제한된 스타일, 프레이즈, 아티큘레이션, 리듬 아이디어)을 주어 그것을 즉흥적으로 전개 시켜 음악성을 기르는 훈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즉흥 연주가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권장한다. 즉흥 연주를 삼각형을 이용하여 표현해 보면, 음정과 리듬에 대한 시간, 공간, 힘을 지닌 움직임의 상호 작용은 삼각형의 밀변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락과 화음은 서로 작용하면서 즉흥 연주에 이용하는데, 삼각형의 밀변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흥 연주는 꼭지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삼각형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음악의 기초 요소인 리듬과 음정, 음악을 이루게 되는 가락과 화음에 대한 훈련 경험의 부족이나 음악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삼각형의 모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흥 연주는 타악기(작은 북,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또는 목소리로 시작하는데 서너 명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경우와 노래와 악기 연주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달크로즈는 어린이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서 신체나 타악기 등으로 음악을 표현하게 하였다. 그는 정해진 음(D, E, F#, G#의 네 음)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자신은 그 음에 대한 화음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면서 두 마디 정도의 음형을 즉흥적으로 노래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두 음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물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악기로 자신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음

20)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25

악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테니스공으로 피아노에서 즉흥 연주하는 방법은 음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빠르고 느림, 크고 작음, 부드럽고 거친음 등을 박자와 리듬을 기초로 하여 연주하는 방법이며, 연령과 음악적 재능에 따라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21)

특히 연주의 마지막 지도 단계에서는 심미적인 판단을 체험하게 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즉흥 연주를 통해 '너무 높다', '너무 낮다', '너무 짧다', '너무 크다', '너무 작다', 또는 '가장 알맞다' 등의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음악적 표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22)

### 3. 달크로즈 교수법의 음악적 반응

달크로즈는 인간의 신체를 오케스트라의 악기군이라 생각하고 이 악기군으로써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예술 표현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23)

<음의 강약>

- 강한 음: 강한 박수를 친다. 무릎을 높이 올리어 제자리 걸음을 한다. 공의 동작을 흉내낸다.
- 약한 음 : 약한 박수를 친다. 무릎을 올리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

<박자감>

2박자의 경우 첫째 박 강박은 박수, 둘째 박 약박은 양손을 가슴에 대는

---

21) 이양순(2003), 움직임을 통한 음악적 두뇌와 감각 계발에 관한 고찰, 동서음악학회지 p.8

22)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p.327

23) 전현성(1991), 최신 유아 음악 교육, 서울:태림 출판사 p.177-178

등의 동작으로 강약이 교대로 연속되는 것을 이해시켜 강박, 약박의 감각을 깨닫게 하여 박자 감각을 훈련시킨다.

<음의고저>

- 높은음: 양손을 들어 기지개를 한다. 작은 새나 다람쥐 등의 흉내를 낸다.
- 낮은음: 몸을 낮게 한다. 코끼리, 거북이 등의 흉내를 낸다.

<화음감>

- I(도미솔): 양손을 가슴 위에서 잡는다.
- IV(파라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린다.
- V(솔시레): 양손을 뒤로 잡는다.

<속도감>

피아노 속도를 변화시켜 곡의 연주에 맞춰 박수를 치게 한다. 기차의 흉내 등으로 속도감을 훈련시킨다.

<음표와 관련된 기초적인 동작 표현>

음 표	손의 동작	발의 동작
○	양손으로 천천히 큰 원을 그린다.	A의 발을 한발 앞으로 내딛고 B의 발로 동동하고 마루를 친다.
□□	박수를 치며 양손을 위로 올리고 좌우로 벌려서 옆으로 내린다.	한발을 내딛고 그대로 무릎을 굽힌다.
┘	박수 (원을 그리듯이)	걷는다(보통걸음)
♪	한번 숨 쉰 사이 두번	달린다.
♩	발의 스키핑에 맞춰서 박수	스키핑(경충 경충 뛰다)

#### 4. 달크로즈 교수법의 이론 정리

	교육철학	교육 목표	교수방법
달크로즈	어린이의 음악적 재능은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나며, 신체는 리듬의 중요요소인 박자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리듬'이라는 인간 공통의 감각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표현하는 수단을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한다.	건전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내적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소리에 대한 정확한 청음발달을 이루어야 하며, 자유롭게 활발한 발명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음악적 리듬감을 발달시킨다.	유리드믹스는 신체 동작을 통해 리듬을 경험시키며, 솔페지는 집중적인 듣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음정과 음절로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 즉흥연주는 피아노를 통한 즉흥 연주가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자신의 창의성을 갖고 지도한다.

#### 5.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교육방법

##### 1) 동작지도 방법

동작으로 박, 리듬, 악절단위를 기본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발끝으로 사뿐히 움직여 신체의 균형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한다. 천천히 교사가 먼저 동작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 동작을 따라 하도록 지도하는데 동물이거나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면 상상력을 기를 뿐 만 아니라 목적하는 동작도 쉽게 지도할 수 있다. 걷고 멈추기 동작은 사슴과 사냥꾼을 상상하고, 뛰는 동작은 강아지를 연상시킨다.

동작에서 멈추기와 방향 바꾸기는 아주 중요하다. 학생의 연령에 따라 짧은 마디를 움직이고 멈추기를 반복하며(4마디 정도), 좀 더 길게 하여(8마디, 4마

다) 악절을 느끼도록 한다.

(1) 걷기( 4분음표 ), 뛰기( 8분음표 ) 리듬동작의 단계적 지도 방법

- ① 입으로 언어리듬(걸어가자.... )을 소리내며 동시에 신체리듬(무릎...에 손바닥으로)을 한다. 이때 악절교육을 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한다. 동기는 1마디나 2마디 정도, 악구는 4마디 혹은 8마디, 악절은 16마디 혹은 32마디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4마디, 2마디, 1마디 그리고 8마디 단위로 동작과 노래를 멈추거나 방향을 돌리는 방법으로 익힌다.
- ② 앉아서 발바닥으로 바닥에 도장을 찍듯이 걷기, 뛰기 동작을 언어리듬과 함께 한다.
- ③ 제자리에 서서 걷기, 뛰기 리듬동작을 두 악절 정도 하다가 멈춤(얼음)과 방향전환(뒤로돌아)을 한다.
- ④ 잘되면 리듬에 맞추어 악절 단위로 방향전환과 멈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걷기, 뛰기 리듬동작을 하되 이때 학생들이 교사의 피아노 반주나 북소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다.

리듬

 걸 어 기 자	 걸 어 가 자	 사 뿐 사 뿐	 걸 어 가 자
 걸 어 기 자	 걸 어 가 자	 사 뿐 사 뿐	 걸 어 가 자

(4+4+2+2+1+1+4)

리듬

뛰어가자뛰어가자 빨리빨리뛰어가자 이쪽으로뛰어가고 저쪽으로뛰어가자  
 뛰어가자뛰어가자 빨리빨리뛰어가자 이쪽으로뛰어가고 저쪽으로뛰어가자  
 뛰어가자뛰어가자 빨리빨리뛰어가자 이쪽으로뛰어가고 저쪽으로뛰어가자

(4+4+2+2+1+1+4)

(2) 켈롭(J ♩) 리듬 동작의 단계적 지도 방법

켈롭 리듬을 스킵(□□)리듬에 비해 무겁고 깊은 맛이 난다.

- ① 동그랗게 서서 먼저 교사가 켈롭 리듬을 동작과 함께 언어 리듬으로 보여준다.
- ② 학생들의 연령과 분위기에 맞게 간단한 말로 동작 지시를 한다. 이때 제스처와 동작의 준비박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리듬에 맞추어 준비박의 지시어로 동작을 시작한다.
- ③ 리듬막대로 켈롭 리듬을 교사가 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언어리듬과 켈롭 리듬동작을 멈춤과 방향전환을 섞어서 한다.

리듬

단어

마 리 라 타 시 전 계 인

학생들의 입이 열려야 (언어리듬) 마음이 열리고 음악적 표현이 좋아진다. 어려서부터 입을 여는 훈련을 하여 표현하는 성격, 습관을 만들어 주자.

(3) 스킵(□□) 리듬 동작의 단계적 지도방법

- ① 스킵리듬은 가벼운 느낌으로 먼저 언어로 리듬교육을 한다.

방법은 “스 킵스 킵스 킵스 킵스 킵”으로 짧은 리듬에 강세를 주어 말한다.

- ② 번갈아 한쪽 발씩 제자리에서 두 번 뛰기 동작을 규칙적인 박에 맞추어 하다가 동작의 속도를 점점빠르게 하며 움직인다
- ③ 스킵동작을 작은 북소리에 맞추어 멈춤과 방향전환을 섞어서 한다.

리듬

강 기루 기신 이너서 스 킵스 킵스 킵스 킵 원 춤이 도선 이너서 스 킵스 킵스 킵스 킵  
원 춤이 도선 이너서 스 킵스 킵스 킵스 킵 스 킵스 킵스 킵스 킵  
강 기루 기신 이너서 스 킵스 킵스 킵스 킵 원 춤이 도선 이너서 스 킵스 킵스 킵스 킵  
(뒤도움)

(4+4+2+2+1+1+4)

(4) 악센트 동작

- ① 동그란 원을 만들어 작은북의 한 박과 반박의 소리를 들으며 동작을 하다가 불규칙한 큰소리(악센트)가 들리면 점프를 한다.

우리의 귀가 악센트를 듣고 동작을 하기까지는 한박자가 늦게 동작 반응이 온다. 그러므로 동작과 음악이 어우러지려면 약하게 준비박을 친 후 악센트 박을 연주하여야 한다.

리듬

연주 1 2 3 (4) | 1 2 3 (4) | 1 2  
걸 어 가 다 | 밤 쉬 도 자 | 걸 어

(5) 음색 동작

소리의 색깔을 귀로 구분하기 위한 교육으로 탬버린 소리에는 앞으로, 트라이앵글 소리에는 뒤로 걸기 동작을 한다. 뒤로 걸기 동작은 앞으로 걷는 동작에 비해 보폭이 좁고 조심스레 걸어야 하므로 트라이앵글 소리가 어울린다.

(6) 쉼표 동작

동작에서는 쉼표에서 발은 멈추지만 신체는 리듬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지도 방법으로 교사의 구령에 맞추어 학생이 걸어가다가 교사의 쉼표사인의 악기소리가 나면 멈춘다. 마지막 박에서 악기로 동작이 바뀌는 사인을 준다.

(7) 감각 동작

정확히 음악을 듣는 훈련으로 피아노의 음악에 맞추어 앉아서 혹은 일어나서 오른손 선율은 손으로, 왼손 선율을 발로 동작을 한다. 손은 멜로디를 따라 위 아래로 움직이며 발은 멜로디가 올라가면 앞으로, 내려가면 뒤로 바뀐 걸음을 한다.

(8) 화음 동작

화음이 될 수 있는 음을 찾는 교육으로, 3도 간격으로 화음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익힌다.

- ① 노래를 부르며 지정한 음이 나오면 그 음의 화음친구 말하기 게임을 한다.



- ② 동그랗게 색지를 오린 접시만한 종이에 계이름을 ‘도’부터 ‘높은 파’까지 모두 11개를 붙인다(발견반을 사용하여도 좋다). 노래를 부르며 교사가 지시하는 음에서 화음이 도는 음으로 점프를 한다. 이때에 교사는 어린이가 밟은 계이름을 피아노로 쳐 준다. 리듬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③ 화음의 흐름과 음악의 무게를 느껴보는 동작으로 무겁고 느린 템포, 가볍고 빠른 템포의 피아노음악의 화음이 바뀔 때마다 신체로 자유로운 표현의 동작을 한다.
- ④ 파트너를 정하고 파트너와 함께 마주보며 파트너의 움직임에 받는 동작을 한다.

(9) 클래식 음악 감상과 동작

동작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교육방법은 들은 음악의 느낌과 멜로디의 움직임을 신체로 표현하여 주는 것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아름다움보다는 음악이 지니고 있는 색깔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파트너와 신축성이 좋은 줄스카프를 마주잡고 음악에 맞추어 느끼는 대로 표현한다. 한 친구가 줄스카프를 꼬면 다른 친구는 줄스카프를 펴는 동작을 한다.
- ② 한 친구가 창작 움직임을 보여주면 파트너가 똑같이 따라하는 주고받기 동작을 한다.

2) 리듬 교육의 단계적 지도 방법

### (1) 규칙적인 박의 흐름 익히기

박은 심장의 고동소리, 맥박이 뛰는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말한다.

그 움직임이 변화를 주기 시작하여 물결이 출렁이듯 움직이려 하는 것이 점차로 정리되어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박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① 한 박 단위의 규칙적인 리듬의 작은북 소리에 맞추어 사슴이 사뿐 사뿐 걷는 동작과 점프동작 (움직임의 속도가 빠르므로 걷거나 달리는 동작보다는 점프 동작으로 박을 익히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익힌다) 을 하다가 큰북의 사냥꾼 총소리가 나면 숨는 동작을 한다. 동작에서 멈추기, 뒤로돌기를 잊지 말고 4마디 단위, 8마디, 2마디 단위로 멈추기를 하여 악절을 익힌다.

② 언어리듬을 한 박 단위로 달크로즈 손뼉치기(무게중심과 흐름을 가지고 상상하면서)와 입으로는 항상 언어 리듬을 말하며 흐름을 느끼고 박과 리듬을 익히다. 점차로 달크로즈 신체표현방법으로 음악용어를 지도한다. 이때 박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규칙적인 박의 흐름을 익히면서 유아들은 음의 고저(높은소리와 낮은소리), 리듬(일정한 박의 흐름), 소리의 크기(큰소리와 작은 소리), 소리의 길이(긴소리와 짧은 소리), 소리의 색깔(각 악기 또는 사물의 소리 색깔 구분)을 익히도록 한다.

### (2) 박의 흐름 익히기 단계

① 사분음표와 팔분음표의 언어리듬+음정+달크로즈 손기호로 바로받기

달크로즈 손기호는 음의 높고 낮은 의미와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손으로 음정의 높이를 수직적으로 표현한다. 앉은 자리에서 두 손을 앞으로 점점 올려서 만세까지 하여 한 옥타브를 표현하거나, 두 손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계이름과 음정을 익힌다.

또한 양 손으로 두 개의 선율을 듣고 손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고도의 집중력과 두뇌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신체로 두 개 이상의 선율을 표현하기도 한다. 손기호 활용은 음의 높고 낮은 개념을 중심으로 점차 계이름으로 들어간다. 학생들은 계이름을 손기호로 익힌 후 양손이 두 개의 멜로디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기초에서 전문가까지 음악성을 키우는 포괄적인 교육을 해 나간다.

② 리듬패턴+신체리듬치기+주고받기

교사는 재미있는 창작문장 패턴을 만들어서 리드치기를 한다. 이러한 리듬패턴을 교사와 학생이 박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주고받기를 할 때 서로 간에 호흡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때 교사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는 언어리듬과 언어리듬사이가 경직되어 끊어지지 않고 마치 원을 그리듯이 리듬이 흐르면서 이어지도록(프레이즈를 느끼도록) 지도해야 한다.

(3) 박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듬표현

① 공을 전하는 동작으로 박자개념을 익힌다.

- 타악기(탬버린, 작은북, 큰북 등)에 맞추어 공으로 한 사람이 한

마디를 표현한다. 이때 단위박에 맞추어 신체부위를 바꾸어가며 표현해야 한다. 이 게임의 숙달정도에 따라서 템포의 변화를 주면서 공을 전달하는 방법도 익힌다.

- 파트너와 마주보고 교사의 타악기 연주나 피아노 음악에 맞추어 음악의 악구와 악절, 모티브를 공을 돌리며 익숙도에 따라서 멈춤과 방향전환을 섞어서 게임을 한다.
- 교사와 학생 (2명)이 공돌리기 게임을 통해 피아노곡의 소품들의 작고 큰 프레이즈를 표현한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마주보고 손으로 공을 돌린다. 교사가 피아노곡의 멜로디를 노래하듯이 부르면서 한번은 오른쪽으로, 다음은 왼쪽으로 공을 박에 맞추어 돌린다. 음악이 멈추어지면 방향을 바꾸어 공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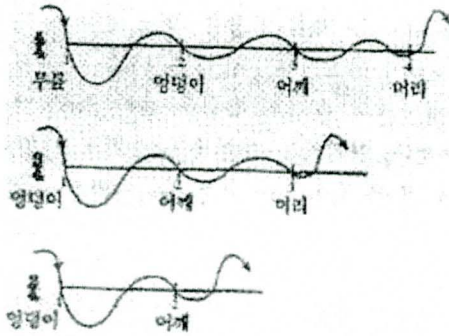
② 공을 박에 맞추어 바닥에 던지고 잡기 게임을 한다.

“하나 둘” 하는 교사의 목소리에 맞추어 반드시 두 손을 이용하여 던지고 잡는 훈련을 먼저 한 다음 교사의 즉흥 피아노 연주의 빠르고 느린 음악에 맞추어 공 던지기를 한다. 공을 박에 맞추어 튕기고 잡는 게임은 매우 높은 집중력을 요구 하며 시간, 공간,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③ 달크로즈 손뼉 대신에 신체를 짚는 방법으로 박자를 친다.

④ 박자가 지니고 있는 리듬의 흐름을 동작으로 익힌다. 박자의 의미와 박자의 리듬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첫 박의 강박은 앞으로 걸기, 나머지는 뒤로 걸기 동작으로 강박과 약박을 표현한다.

⑤ 달크로즈 손뼉으로 혼합박을 경험한다. 교사는 손가락으로 3,4,2,6등



숫자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고 신속하게 집중하여 손뼉을 치게 한다. 손뼉을 치다 보면 박이 점점 빨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북 소리로 박을 유지하도록 한다. 잘 되면 크고 작게, 높고 낮게, 날카롭고 부드럽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⑥ 지휘하는 법과 지휘를 통해 같은 박자가 반복 되는 것을 경험한다.

지휘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여 하기 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이미지의 그림에 교사를 따라서 “점” 소리를 내며 점을 찍으며 자유로운 팔의 움직임을 연습한다.

### 3) 음정과 계이름을 익히기 위한 단계적 지도방법

#### (1) 음정대화

규칙적인 박의 흐름에 자연스러운 대화로 창작 노래를 만들어 정확한 음정을 달크로즈 손기호와 함께 익힌다.

#### (2) 음정 리듬을 달크로즈 손기호와 함께 대화로 바로 받기(즉흥 노래 창작의 기본 단계)

사분음표와 팔분 음표를 섞어서(리듬패턴) 단계별 음정패턴을 달크로즈 손기호와 함께 대화로 계속 익힌다. 계이름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음정 지도 단계

1. 솔 미
2. 라 솔 미/ 솔 미 라/ 미 솔 라
3. 미 레 도
4. 도 미 솔
5. 솔 미 레 도/ 도 레 미 솔/ 솔 레 미 도/ 미 레 도 솔/ 미 솔 레 미 도
6. 라 솔 미 레 도

(3) 음정의 단계별 패턴과 리듬패턴을 달크로즈의 신체 표현 방법으로 크고 작게, 짧고 길게, 부드럽고 날카롭게 등 교사가 손동작과 함께 질문하면 어린이는 손동작을 하며 주고받기로 대답을 한다. 이때 교사는 박을 놓치지 말고 이끌어 가야 한다. 이 교육은 음정을 정확히 익힘과 동시에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이 그대로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창작의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4) 단순히 노래를 통한 게이름에서 좀 더 전문적인 게이름 공부를 하여 음악적 두뇌를 키우는 방법으로 게이름을 빠르게 읽는 게임을 한다.

- ① 음의 높이를 뺀 상태에서 교사가 말하는 음의 끝에서 같은 방향으로 리듬패턴에 맞추어 주고받기 게임을 한다.
- ② 이번에는 교사가 말하는 음의 끝에서 반대 방향으로 리듬패턴에 맞추어 주고받기 게임을 한다.
- ③ 지정해 넣은 음정관계와 상행 또는 하행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리

듬패턴에 맞추어 주고받기 게임을 한다. 흐름을 놓치니 말아야 하며 익숙도에 따라서 템포의 변화를 주면서 흐름의 긴장과 이완도 느껴 볼 수 있다.

같은 방향	
교사	학생
도레미	미파솔
레미파	파솔라
솔라시	시도레

반대 방향	
교사	학생
도레미	미레도
레미파	파미레
도도레레미	미미레레도

3도 위 아래	
교사	학생
도레미	미파솔
파솔라	라시도
솔파미	미레도

(5) 계이름으로 동기와 악구 익히기를 한다.

- ① 7단계, 8단계로 손 기호와 함께 여러 가지 자음과 모음으로 목소리를 올리거나 내린다. 짧고 길게, 크고 작게, 빠르고 느리게 변화를 주면서 한다. 익숙도에 따라서 교사와 어린이가 반대로 대답하는 게임을 한다.
- ② 계이름 도-도' 까지 음의 높이를 빼고 음이름만 손 기호를 하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동기, 악구와 악절을 숨(Breath)으로 조절하는 달크로즈의 교육방법을 솔페지 교육과 함께 익혀 본다.



③ 계이름 도-도' 까지 음의 높이를 넣어 음이름만 손 기호를 하면서

위의 2번 방법으로 반복한다.

• 호흡교육

달크로즈 음악교육 중에서 호흡으로 음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동기나 악구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호흡과 연관시켜 교육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연주에도 도움이 된다.

- 교사는 천천히 '1 2 3 4'를 세면 유아는 4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1부터 천천히 숨을 내쉰다.
- '1 2 3' '1 2 3 4 5 6'과 같이 숫자를 바꿔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호흡하면서 박차감과 리듬감을 호흡으로 느끼도록 하여 동기와 악구 교육을 한다.

(6) 교사와 게이름으로 대화를 한 후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느끼고 말하고 싶은 그대로를 음악화하는 자연스러운 즉흥노래로 창작교육을 한다.

(7) 달크로즈의 솔페지 교육으로 독보력을 기르기 위한 음악게임의 단계(절대음감은 알파벳으로, 상대음감은 게이름으로 지도)

- ① 줄 하나를 칠판에 그리고 줄 위, 줄 아래, 줄 안에 동그라미를 자유롭게 그리거나 작은 종이접시를 붙이는 게임을 한다. 그런 다음 줄에 음을 정한다. 가령 '솔'로 정하면 솔을 중심으로 '솔솔라라솔파솔', '미'로 정하면 '미미피피미레미'로 읽는다. 먼저 두뇌로만 읽고 소리내지 않게 한 다음 교사가 '시작'하면 빠르게 읽는 스피드 게임을 한다. 또한 반대로 읽기 게임



도 한다. (계이름과 알파벳을 입에서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하다보면 독보력이 좋아진다.)

- ② 한 줄에서 두 줄로, 두 줄에서 세 줄로 서서히 늘리며 줄의 음이름을 임의로 선정하여 악보를 빨리 읽는 연습을 한다.
- ③ 리듬을 붙여 노래한다.
- ④ 두 팀으로 나누어 노래한다. 음표의 기둥으로 팀을 나눈다.
- ⑤ 음표들의 부분 부분을 내청(Inner Hearing)을 하며 노래한다. 음표의 기둥으로 팀을 나눈다.
- ⑥ 점차 적으로 음악의 길이를 길게하면서 여러 가지 박자를 그려 넣고 알파벳과 계이름으로 노래한다.

#### 4) 신체리듬치기

(1) 신체리듬 치기는 신체의 감각을 자극시켜 리듬감을 발달시키는 방법으로, 몸의 부위를 리듬에 맞추어 치고 움직이는 달크로즈 교육이다. 앉아서 교사가 어깨, 가슴, 배, 코, 귀 엉덩이 등으로 신체부위를 매번 바꿀 때에 지시하는 교사의 목소리도 신체부위에 따라서 높낮이가 표현되어야만 한다. 크고 작게, 길고 짧게 등의 음악적 질의 표현도 하면서 리듬패턴에 언어리듬으로 주고받기 게임을 한다.

(2) 교사와 반대 방향의 신체부위를 리듬 치기를 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머리를 지면학생은 배를 친다, 4마디, 2마디 혹은 1마디 단위로 신체리듬 치기를 한다.

5) 험표의 소리없는 리듬의 흐름을 익힌다.

① 교사가 한 박 단위의 규칙적인 리듬을 손뼉으로 몇 번 쳤는가를 알아 맞추는 게임으로 교사가 달크로즈 손뼉치기로 리듬의 흐름을 표현하며 손뼉을 친다. 학생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손가락만으로 손뼉의 개수를 규칙적인 리듬의 소리없는 흐름에 맞추어 표현한다. 이 때 교사도 목소리를 내지않고 오로지 리듬의 흐름에 주고받기의 제스츄어만 실어서 게임을 이끌어 간다. 익숙도에 따라서 템포를 빠르게 주고받기를 할 수 있으며 손뼉 대신 북소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단어를 2박, 3박, 4박 등의 규칙적인 리듬의 흐름에 맞추어 말하고(음표의 의미) 제스츄어(쉽표의 의미)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목소리로) 야옹(제스츄어만)하는 식으로 교사와 주고받기 게임을 한다.

③ 익숙해지면 일어나서 음표의 의미인 고양이를 말하며 걷기 동작을 하다가 쉽표의 의미로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목소리 없이 (야옹)만을 하여 쉽표 동작에서는 발의 움직임은 멈추지만 두뇌와 신체는 리듬이 계속 흐르고 있음을 몸으로 표현을 한다.

④ 음표와 쉽표의 리듬차트를 보고 그것을 달크로즈 손뼉을 치며 익힌다. 또한 쉽표와 음표의 자리를 바꾸어 소리가 있는 리듬과 소리가 없는 리듬과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교사는 여러 가지 제스츄어로 쉽표사인의 의미를 만들어 리듬차트를 보면서 음표는 소리 있는 음악의 흐름이고 쉽표는 소리없는 음악, 소리없는 리듬,소리없는 흐름임을 학생에게 인식시키고 몸으로 느끼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6) 리듬패턴 그리기

- ① 악기 연주와 교사의 지시하는 소리를 듣고 리듬패턴을 알아 맞추는 게임을 통해 음표와 쉼표가 가지고 있는 길이를 청음으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교육방법이다. 칠판에 여러 가지 리듬차트를 걸어 놓거나 그려 놓는다. 교사가 타악기나 언어와 제스처어를 하면 어느 리듬인지를 알아 맞추기 게임을 한다.
- ② 단어리듬 릴레이 게임을 한다. 릴레이 게임은 박을 놓치지 않아야 하므로 협동심과 순간각각이 필요하며 리듬감과 음악적 감각(Sence)을 기르는데 좋은 게임이다.

#### 7) 리듬패턴으로 창작(작곡)게임

- ① 교사는 카드를 준비한다. 한 박에 한 명꼴로 생각해서 3/4박이면 3명이나 6명, 4/4 박이면 4명, 또는 4명씩 두 팀 등 카드의 리듬과 인원, 그리고 박을 생각해서 게임을 준비한다. 4명인원의 한 팀당 한 박자 카드(10장정도)와 겔럽리듬(5장정도)을 큰북을 덮어놓은 후에 준비해 둔다. 학생들은 교사의 피아노나 타악기의 리듬에 맞추어 큰북 주위를 맴돌며 동작을 하다가 교사가 "카드"하고 소리치면 얼른 가서 카드를 잡는다.
- ② 집은 카드를 차례로 넣고 싶은 대로 배열을 한 후 가사를 만든다. 다음에는 칠판에 만든 것을 나란히 놓고 글(작사)을 만든다. 다한 것을 칠판에 리듬을 붙이고 밑에 가사를 적는다.
- ③ 교사는 가사가 지니고 있는 모티브의 움직임을 슬러로 표시하여 준다. 다 같이 모티브의 움직임을 숨쉬기와 목소리의 표현을 하며 신체 리듬 치기나 몸짓으로 표현을 한다. 점차 마디를 늘려 악절정도의 표현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리듬창작게임은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복잡한 리듬 꼴은 피하고 간단하면서 리듬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

## 6. 달크로즈 음악 교육 이론에 기초한 노래지도의 실례

달크로즈의 독특한 음악 교육 이론을 펴고 이를 실천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 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육을 실현하고자 실제 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노래 선택에 있어서 오음 음계로 된 우리나라 민요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노래교재 중에서 학생들이 잘 반응할 수 있는 곡 (오음 음계의 노래, 4분의 3박자의 노래, 리듬 패턴이 단순한 노래, 16마디 이내의 노래)을 발췌한다.

둘째, 리듬감의 습득을 위한 학습에 일차적인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셋째, 음악과 동작은 한 교과시간 내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노래 부르기' 역시 동작과 연관을 맺으면서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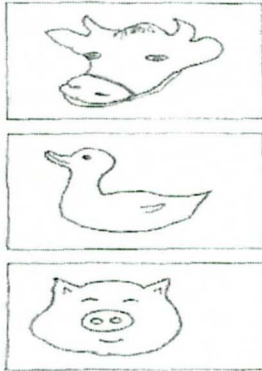
이러한 3가지 원칙 아래서 '송아지' 노래를 선택하여 지도의 실례를 제시한다.

< 송아지 >

송 아 - 지 송 아 - 지 얼룩 송아 지

엄 마 소 락 얼룩 소 엄 마 - 똥알 너

- ① 교사는 송아지 노래를 가르치기 전에 동물 울음소리로 언어 리듬을 만드는 경험을 시켜서 말에도 리듬이 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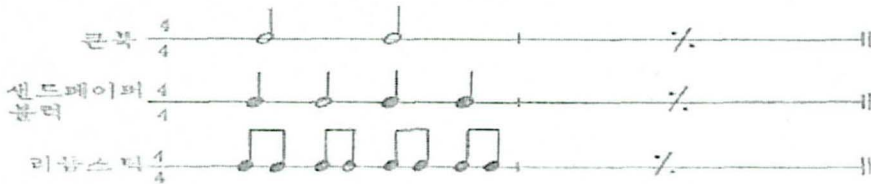


〈손뼉〉   
 (언어〈말〉) 음 - 매 음 매 송 마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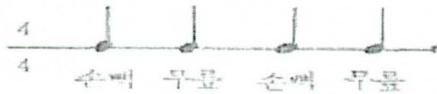
〈손뼉〉   
 (언어) 뵉 뵉 오 리

〈손뼉〉   
 (언어) 짹 짹 짹 짹 왜 지

이때 언어리듬의 리듬을 손뼉 대신에 타악기를 사용하여 칠 수 있다.



- ② 교사가 송아지 노래를 불러주고 학생들은 주의깊게 듣도록 한다.  
 ③ 송아지 노래의 리듬을 신체 리듬을 이용하여 쳐 보도록 한다.



- ④ 학생들이 여러 가지 타악기의 음질을 식별하고, 악기 소리가 갖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템포가 다른 리듬을 주고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해보도록 한다.

예: “송아지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옆을 다람쥐가 ‘또르르르’ 지나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송아지 걸음과, 다람쥐가 지나가는 모습을 악기로 표현해보게 한다.



- ⑤ 송아지 노래의 멜로디를 하나의 음절을 ‘아’ 혹은 ‘라’로 노래 부른다.
- ⑥ 교사가 노래를 부르고 학생들에게 신체리듬으로 박자를 맞춰 보게 한다.  
(주의: 이때 교사는 리듬치기를 잘 못하는 학생을 체크했다가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 ⑦ 교사는 노랫말에 리듬을 넣어 읽어준다.
- ⑧ 교사와 학생이 전체 노래를 2~3회 부른다.

### Ⅲ. 결 론

음악을 느끼고 발견하고 연상하고 상호 관련 속에서 기억 할 수 있고, 독보하고 작곡 할 수 있으며, 악곡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능력을 계발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달크로즈의 교수법이 창안 되었다. 음악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귀 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오감을 이용해 표현해 내는 것이 달크로즈 교수법인데. 논자는 몇 년 전부터 교수법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일상생활에서 늘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 해 낼 수 있도록 음악 교육 방법에 쉽게 접근 해 보고자 이 교육 방법의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연구 분석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음악의 기본적인 개념은 피치가 아니라 리듬이다. 리듬이라 함은 음악의 주를 이루는 뼈대의 역할을 하며 음악을 진짜 음악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달크로즈의 리듬 교육방법은 음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틀에 박힌 움직임이나 느낌의 표현보다는 생각해 내지 못할 정도의 상상력과 창작력을 지니게 하며 음악을 들으면서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리듬 악기를 통해 리듬감을 익히도록 교육한다. 규칙적인 박, 박자, 리듬을 바탕으로 수직적인 요소, 슬폐지를 통해 음감과 음정 화음을 익혀 나가는 것이다. 귀로 듣고 몸으로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을 음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교육이 바로 즉흥인데 작곡가가 음악을 악보에다 그리는 것처럼 머리로 떠올려 바로 피아노에다 그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음악으로 만들어 가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달크로즈의 교육은 음악적 두뇌와 음악적 감각을 일깨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을 통해 움직임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한다.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은 신체, 마음, 정신을 조화롭게 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건강한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신체로 성장하며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 방법은 꼭 필요하다.



## 참고 문헌

Web site 문서 참고, 한국달크로즈협회, <http://www.dalcroze.co.kr>

Robert M. Abramson(1999),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에 기초한 리듬게임,  
유승지역. 서울:태림출판사

유승지(2001),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 교사 지침서 I,II,III 서울:태림출판사

유승지(2001), 유승지 달크로즈 교실 어린이 교재 I,II,III 서울:태림출판사

이영,유애열(1985), 유아를 위한 음악 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융성출판사

이주옥(1982), “유치원 음악지도의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 학위 논문(미간행)

이홍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현대음악출판사

이룡수외(1992), 현대의 음악교육, 서울:세광음악출판사

찰스R.호퍼(1954), 음악교육론,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임산희(1986),“유치원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일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 학위논문(미간행)

이양순(2003), 움직임을 통한 음악적 두뇌와 감각 계발에 관한 고찰 ,동서음  
악학회지

문연경(2001),유리드믹스 교수법 2권,서울:현대음악출판사

전현성(1991),최신 유아 음악 교육,서울:태림 출판사